

# 한성대신문

1976년 12월 15일 창간

www.hansungnews.com

2021년 5월 10일 월요일 제567호

지면안내 02 보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 속출했지만... 처벌 어려워 / 03 보도 복귀한 김상조 교수, 2학기부터 강의 진행 예정 / 04 기획 대체 가능해서 완벽했던 NO 플라스틱 / 06 사회 2021 청년정책 시행계획 발표, 청년의 현실 반영됐다

## 블렌디드 수업 방식 유지, 본부 “교내 방역 강화할 것”

4월 22일, 본부가 '중간고사 이후부터 종강일까지 블렌디드 수업 방식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2일 교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면서 학생들의 불안감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대학본부는 “교내에서 코로나19가 전파된 사례는 없다”며, “방역 수칙 준수 감독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방역 대책으로 블렌디드 수업 방식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면강의 진행에 학생 불안감 여전

개강 이후부터 현재까지 학내 커뮤니티에는 확진자가 발생한 후 후시 모를 감염이 걱정돼, 건물에 출입하기 불안하다는 여론이 꾸준하다. 국내 확진자 수가 500명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교내 확진자까지 발생하니 대면강의를 듣는 것이 두렵다는 이유다. 이상완(IT 1) 학생은 “교내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대면강의를 진행하는 것은 위험한 판단”이라며 수업 운영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현재 본교의 블렌디드 수업 방식은 오프라인 강의와 온라인 강의를 병행하는 형식이다. 오프라인 강의는 웹엑스(Webex) 등을 이용한 실시간 수업 혹은 대면강의로 구성된다. 온라인 강의는 e-class에 올라온 녹화 강의로만 수업이 진행된다.

학사운영팀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시행된 대면강의 수는 전체 강의 1,473개 중 307개(20.84%)다. 본교는 ▲강의 인원 ▲방역 상태 ▲거리 두기 가능 여부 등을 기준으로 심의를 거쳐, 대면강의를 허용하고 있다. 1학년 전공 기초강의의 경우, 이론강의도 심의를 거쳐 1회 대면강의를 허용하고 있다. 안상욱(학생장학팀) 팀장은 “이론강의의 경우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와 1.5단계에 일부 허용하지만, 1학년은 학교에 방문한 경험이 없다는 것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평일(좌)에는 건물 출입구에서 학생증 인식과 체온측정이 진행되지만 주말(우)에는 진행되지 않는다.

본부는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블렌디드 수업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윤철(학사운영팀) 팀장은 “학생들의 우려를 이해하지만, 확진자 수가 1-2명 증가했다는 이유로 수업 운영 방식을 변경하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현재로서는 블렌디드 수업 방식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현재까지 발생한 교내 확진자 수는 방역으로 대처 가능한 수준”이라며, “실습·실습 과목의 경우 교육적 효과를 고려해 대면강의를 허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본부는 현재까지 본교 내에서 코로나19 전파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안 팀장은 “확진자 5명의 감염 경로와 밀접접촉자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사적 모임을 통한 감염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거나 가족이나 지인 중 확진자가 발생하면 본교 대책상황실에 신속히 알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강의실 내 방역 및 주말 방역 미흡

본부는 대면강의 방역 대책으로 ▲건물 출입구 통제 ▲건물 전체 방역 ▲강의실 소독 ▲손 소독제 비치 ▲교·강사 방역용품 배부 ▲대면수업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진행 중이다. 교내 방역은 강의실 및 공용 공간에 주 1회 시행되며, 대면강의가 진행되는 강의실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소독이 진행된다. 쉬는 시간에는 일회용 소독 솜을 배부해 개인 방역을 지키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럼에도 학생들은 대면강의 진행 시 강의실 내에서 방역 지침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대면강의 시에는 교수와 조교의 지도에 따라 강의실 내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만, 강의 시작 전이나 후에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은 오로지 개인의 몫이라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김지안(사회과학 3) 학생은 “대면강의 종료 후 강의실 안에서 5인 이상 모여 대화하는 학생이 많아 불안했다”고 말했다. 정선영(사회과학 1)

학생 또한 “대면강의 전후의 인원 관리가 필요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현 사태에 대해 김택균(ICT 4) 디자인대학 학생회장은 “손 소독이나 개인 좌석 소독 등 방역을 개인 의지에 맡기는 것은 안일한 조치”라며 “본부는 각 강의에서 방역 수칙이 준수되는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주말에 진행되는 강의의 방역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양우진(ICT 2) 학생은 “학기 초에만 주말 정문 통제가 이뤄졌으며, 이후 정문과 건물 출입구에서 신원확인 및 체온 측정 등 별도 이뤄지지 않았다. 기초적인 방역 수칙도 지켜지지 않아 오로지 마스크에만 의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세영(ICT 1) 학생은 “주말에는 정문과 건물 출입구에서 신원확인 및 체온측정을 시행하지 않아 의아했다”며, “본부의 철저한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본부는 주말에 교수와 조교에게 강의실 내

자체 방역을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은 강의실 출입 직전에 체온 측정과 명부를 작성한다. 그러나 평일에는 하루 2회씩 강의실을 소독하는 반면, 주말 대면강의가 11개입에도 주말에는 별도의 소독이 이뤄지지 않는다.

본부는 대면강의 시 개인 방역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주말 교내 방역 수칙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팀장은 “근로 학생이 건물에 출입하는 학생에게 손 소독 및 소독 솜의 사용을 안내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조 팀장은 “원래는 주말에도 정문을 통제하지만 방문 인원이 적어 관리 측면에서 소홀히 한 것이 맞다”며 “주말에도 정문과 건물 출입구에서 방역이 진행될 수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택(컴공 4) 총학생회장은 “주말에도 방역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본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pjy0314@hansung.ac.kr

### 2021학년도 후기 한성대학교 대학원 신입생·편입생 모집

## 완성으로 가는 또 다른 시작

가능성을 실현하는 첫걸음!

전공분야의 진정한 전문가로 우뚝 서고 넓은 식견의 지식인으로 성큼 나아가도록 한성대학교 대학원의 무한한 가능성이 미래의 리더,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HSU 한성대학교**  
HANSUNG UNIVERSITY

일반대학원(주간)		특수대학원(야간)				
대학원	학위구분	모집계열	모집학과	모집학과	모집전공	
일반대학원	박사	인문계	한국어문학과	경영학과	경영관리	
			영어영문학과(모집없음)	호텔관광경영학과	호텔경영, 관광경영, 외식경영	
			사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마케팅, 글로벌경영	
		사회계	문화정보학과	행정학과	행정학, 정책학	
			경영학과	행정학과(모집없음)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 노인복지, 실버산업, 사회복지상담
			무역학과	마케팅학과(모집없음)	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학
	석사	공학계	경제·부동산학과	미약융합학과(모집없음)	중독예방·상담	
			산업경영공학과	민원행정컨설팅학과(모집없음)	민원행정컨설팅	
			정보컴퓨터공학과	사회안전학과	사회안전정책, 사회안전관리	
		예·체능계	미디어디자인학과	뷰티예술학과	뷰티산업융합학과	예술치료(모집없음), 예술경영복지(모집없음), 화장품산업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인보전략학과	인보전략학과	국제안보, 국방정책, 군사전략
			학과간 협동과정	한국어문학과	국방시스템학과	국방M&S, 국방정보시스템
일반대학원	인문계	사학과	영미문화학과(모집없음)	문화예술, 헤어디자인, 뷰티에스테틱, 뷰티소재학(모집없음), 웨딩플래닝(모집없음)		
		문화정보학과	문화정보학과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메니지먼트컨설팅, 컨버전스컨설팅, 스마트팩토리컨설팅	
		무역학과	미래융합컨설팅학과	창업&프랜차이즈컨설팅, 문화융합콘텐츠비즈니스컨설팅(모집없음), 컨버전스디자인컨설팅(모집없음)		
	사회계	경영학과	부동산금융·자산관리전공, 부동산도시개발·관리전공, 한중부동산전공, 스마트부동산·프롭테크전공	부동산대학원 석사	사회계	
		행정학과	교육행정&리더십전공, 상담심리전공, 유아교육전공	교육대학원 석사	인문계	
		경제학과	국제무역경제학과(영어트랙, 모집없음)	국립무역경제학과(영어트랙, 모집없음)	신경경영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석사	공학계	신경경영공학과	전자정보공학과	전자정보공학과	IT융합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모집없음)	기계시스템공학과(모집없음)	회화학과	
		전자정보공학과	의료파선산업학과(모집없음)	무용학과	미디어디자인학과	
	예·체능계	무용학과	미디어디자인학과	뉴미디어광고프로모션학과	국제어주협력학과	
		미디어디자인학과	뉴미디어광고프로모션학과	국제어주협력학과		
		국제어주협력학과				

※ 비모집학과(전공) 발생에 따라 모집 학과(전공)는 변경될 수 있음. 최종 모집 학과(전공)는 인터넷 원서접수 시 확인 요망

**| 원서접수 및 발표 |**

- 모집공고 : [대학원홈페이지(http://gs.hansung.ac.kr)]-입학안내-입학공고 및 모집요강 확인
- 모집기간 : 2021. 5. 17.(월) 10:00 ~ 5. 28.(금) 17:00
- 지원방법 : 유웨이어플라이(http://www.uwayapply.com)를 통해 인터넷 접수
- 면접고사 : 2021. 6. 19.(토) 10:00 학과(전공) 지원인원에 따라 면접고사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 합격자발표 : 2021. 7. 1.(목) 오후 대학원홈페이지 참고
- 전화문의 : (02)760-4271(대학원 교학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홈페이지 모집공고 참고 또는 전화문의 바랍니다.

**한성대학교 대학원**  
(0276) 서울시 성북구 상선로 16길 116 한성대학교 대학원 교학팀(상선관 100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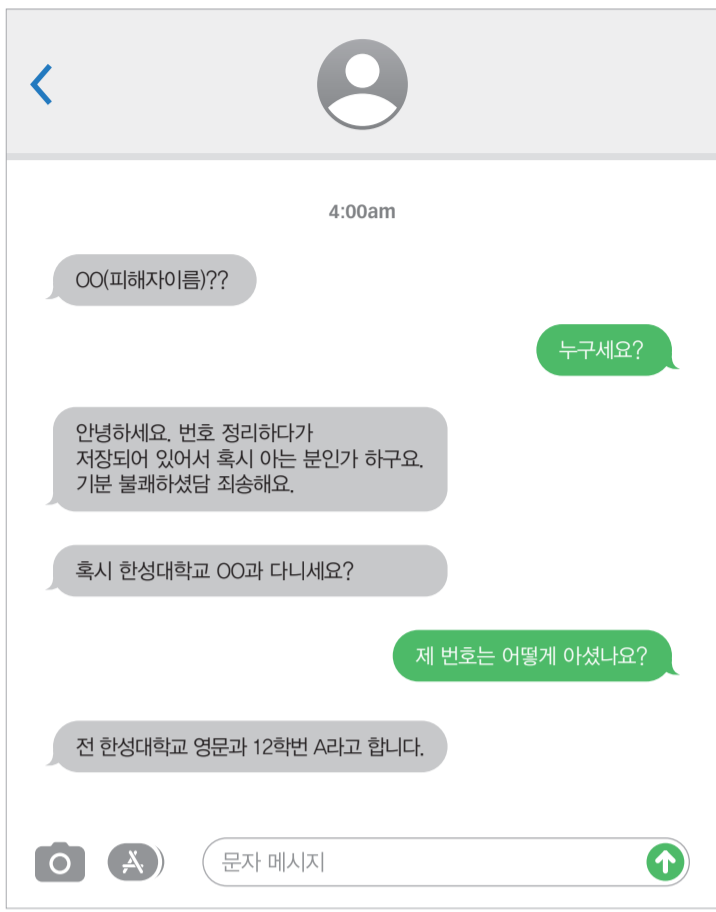
# 개인정보 유출 피해 속출했지만... 처벌 어려워

최근 본교 재학생이 신원미상의 인물 A씨(이하 A씨)로부터 개인정보가 담긴 문자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일부의 개인정보는 특정 학부의 포털 사이트 카페를 통해 유출됐으며, 해당 학부 학생회는 사건이 발생한 즉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사례는 개인정보 유출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대학본부와 총학생회는 접수된 관련 민원이 없다고 밝혔다.

본지는 영어영문학부(이하 영문학부)와 무역학과, 컴퓨터공학부 학생을 포함한 8명의 학생에게 제보를 받았다. 영문학부 학생회장단을 통해 접수된 피해는 영문학부 여학생 10명 내외이며, 무역학과와 컴퓨터공학부는 접수 받은 사례가 없다.

제보에 따르면, A씨는 본인의 이름을 밝히며 본교 영문학부 12학년 혹은 14학년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먼저 학생의 이름을 묻는 문자를 보냈다. 익명의 제보자는 "새벽에 모르는 번호로 이름을 묻는 문자가 왔다. 내 이름뿐만 아니라 학과까지 알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모르는 사람이 내 번호와 이름을 알고 있어 불쾌했다"고 토로했다.

일부 학생에게는 새벽에 전화가



▲본 메시지 내용은 여러 제보자의 동의를 받아 한성대신문사가 재구성했다.

걸려오기도 했다. A씨와 통화한 익명의 제보자는 "전화를 받자 A씨는 자신을 학과 선배라고 주장하며, '선배에게 반갑게 인사해야 한다', '예의가 없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문자에 이어 전화까지 걸려오니 이 사람이 나의 신상정보를 어디까지 알고 있을지 몰라 두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문학부 행정사무실에

따르면 A씨는 영문학부 소속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장상민(인문3) 영문학부 학생회장은 "영문학부 피해 학생들의 연락처는 영문학부 네이버 공식 카페 '한성대학교 영어영문학부'(이하 카페)를 통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확실한 물증은 없지만 사건 당일인 4월 21일 새벽, 비회원 멤버가 카페의 등업 게시판 게시글을 수십 차례 열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해당 게시판을 전체공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학생들의 이름, 학번, 번호 등이 기재돼 있었다.

영문학부 학생회는 4월 21일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 카페 내 개인정보가 적힌 모든 게시물을 삭제하고, 등업 게시판을 사용 불가 상태로 전환했다. 또한, 영문학부 공식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상황을 설명하는 공지글을 두 차례 게재했다. 장 회장은 "앞으로 영문학부 관련 공지 매개체로 카페를 이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학생회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가연(인문3) 학생은 "학생회의 성숙한 대처를 기대했으나 사과 한마디 없는 공지글을 보고 화가 났다"며, "학생회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피해 학생에게 연락을 취했어야 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학생회가 향후 대처 방식을 확실하게 공지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장 회장은 "공지글을 올릴 당시 사건을 빨리 알리는 것에 치중해 사과의 말씀을 전달하지 못했다"며,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개적인 곳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경택(컴공4) 총학생회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같은 일이 또 반복된다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학본부에 신고된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태민(학생장학팀) 팀원은 A씨의 처벌과 관련해 "학교 차원의 처벌은 가해자가 학내 구성원이 확인돼야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피해 학생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팀원은 "비슷한 사건이 반복된다면 개인정보 유출 사례에 대한 안내글을 게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만약 스토킹과 같은 더 큰 피해로 이어진다면 학생장학팀이나 학생상담센터에 신고해주길 바란다.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 본부 차원에서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익명의 제보자는 "다른 학교에도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있는 걸로 안다. 동일범의 소행이라면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등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해 연세대학교 총학생회가 집단 고발을 진행해 범인이 검거됐으나, 경찰은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입수하지 않은 점과 해당 사건이 실제 범외 행위로 발전하지 않은 점을 들어 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중앙대학교에서는 지난해 피해가 발생하자 대학본부 차원에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피해 사실 규명이 어려워 조사와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A씨의 처벌에 대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서 발생한 사건과 동일범이더라도 형사 처벌은 어려워 보인다"며, "모두에게 공개돼 있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발생한 피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보호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혜정 기자 hj716@hansung.ac.kr

## Hello, Mr. President 둘러싼 소음, 본부의 입장은?

학내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을 중심으로 본교 민원서비스인 Hello, Mr. President(이하 프레지던트)에 대한 학생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학생은 답변 속도와 익명성 보장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대학본부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본 서비스는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프레지던트는 학내 구성원이 총장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는 본교 민원서비스로 2017년 6월부터 운영 중이다. 행정 책임자인 총장이 구성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행정 개선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학내 구성원이 프레지던트를 통해 넣은 민원은 비서팀을 거쳐 총장에게 전달된다. 총장은 관련부서와 협의해 답변을 작성한다. 답변은 건의자에게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전달된다.

학생들은 익명을 보장받고, 문제 상황을 총장에게 직접 건의해 빠른 답변을 듣고자 프레지던트를 이용한다. 이외에도 담당부서가 명확하지 않거나 여러 부서에 걸린 문제, 담당부서에 건의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 발생 시 프레지던트를 활용한다.

그러나 답변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학생은 "빠른 답변을 받기 위해 프레지던트를 이용했지만, 약 4개월이 지난 후에야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학생으로서 담당부서에 건의해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면 총장님께 건의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답변은커녕,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어 불편했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그는 "빠른 답변을 할 수 없다면 진척 상황 혹은 답변 기한에 대한 확실한 안내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대학본부는 민원사항의 특성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가 요구돼 답변이 늦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총장은 "행정부서에서 많은 검토와 고민이 필요하고, 더욱 신경 써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이 늦어지는 것"이라며, "가능하면 신속하게 행정 처리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한, 프레지던트 이용 시 익명이 보장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본교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프레지던트는 다른 민원 서비스인 'Q&A'와 다르게 건의자의 익명을 보장한다. 익명의 제보자는 "건의사항을 접수할 때 로그인

하고, 개인정보를 기재하기 때문에 익명이 보장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우려를 밝혔다. 건의사항 접수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성명, 학과, 학번, 연락처, 제목, 내용 등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프레지던트 답변에 민원을 넣은 학생 이름이 기재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익명의 한 학생은 "2019년 이상한 전 총장 임기 중에 프레지던트를 두 차례 이용했다. 그런데 두 번 모두 '00(건의자 이름)학생'으로 답변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익명성 보장 논란에 대해 박지선(비서팀) 팀원은 "비서팀을 거쳐

총장에게 민원이 전달될 때 개인정보를 제외한다"며 "답변에 이름이 적힌 것을 이유로 개인정보 노출이나 익명성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창원 총장 역시 "건의 해결 과정에서 학생의 인적사항은 전혀 공유하지 않고, 철저히 익명을 보장하고 있으니 안심해도 좋다"고 해명했다. 해당 사안은 현재 시정된 상태다.

한편, 이 총장은 "우리 대학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학생들이 총장과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프레지던트라는 소통의 공간을 잘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혜정 기자 hj716@hansung.ac.kr

### 온라인 소모임 활동 발표대회 진행돼

지난 6일, 낙산관 대강당에서 '온라인 소모임 활동 발표대회'가 열렸다. 온라인 소모임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대학 내 대면 활동이 불가한 상황에서 신입생의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대학 생활 적응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각 팀의 멘토는 올해 3월 한 달 동안 카드뉴스 제작, 화상회의 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멘티에게 대학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본 대회는 온라인 소모임의 활동 내용과 후기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대회에는 멘토링 보고서, 멘티의 후기와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선정된 상위 10개 소모임이 참가했다. 각 참가팀은 발표 후 심사위원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심사위원은 학생대표 7명과

학생장학팀 1명으로 구성됐으며, 평가는 ▲우수사례 ▲성과 ▲발표전달력 ▲태도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최우수팀으로 선정된 2개 팀의 멘토에게는 장학금 30만 원과 표창이, 멘티에게는 장학금 3만 원과 비교과 포인트 10pt가 지급될 예정이다. 이외 8팀의 멘토에게는 장학금 25만 원이, 멘티에게는 장학금 2만 원과 비교과 포인트 10pt가 제공된다.

이날 발표대회에 참가한 이시은(사회과학2) 학생은 "상위 10개 팀에 선정될 줄 몰랐다"며, "온라인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부분이 힘들었지만, 소모임 활동을 통해 신입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뿌듯했다"고 말했다.

김기현 기자

kimjihun30@gmail.com

### '한성인 도전이야기' 공모전 열려

본교 학생성공센터에서 오는 16일까지 '한성인의 도전이야기' 1차 수기공모를 받는다. 본 공모전은 '교내·외 대학생들 전반에서의 도전·실패·성취 경험'을 주제로 진행되며, 본교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단, 휴학생과 졸업유예생은 참여할 수 없다.

공모전은 1차 에세이, 2차 영상 평가를 통해 진행된다. 1차 심사는 5월 17일부터 5월 23일까지 이뤄지며, 1차 합격자에 한해 2차 공모가 진행된다. 2차 공모는 에세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발표영상 공모다. 2차 심사는 6월 7일부터 6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심사 결과는 6월 14일에 발표된다. 결과는 본교 비교과 공지와 합격자 개별 연락을 통해 이뤄진다.

신혜림 기자

hyerm126@hansung.ac.kr

### 제16회 한성인 글쓰기 대회, 오는 13일 개최

오는 5월 13일, 사고와 표현 과정이 '2021년도 제16회 한성인 글쓰기 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는 본교 글쓰기센터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본 대회는 학생의 논리적·비판적 사고력, 주제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다.

지원 대상은 본교 재학생이며, 선착순 400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4월 22일부터 5월 10일 오후 5시까지 받으며, 본교 글쓰기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주제는 대회 당일 오후 1시에 홈페이지에서 공개된다. 참가자는 제공된 양식에 맞춰 글을 작성한 후 홈페이지 안내문에 기재된 메일로 오후 4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답안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1심, 2심, 본심을 거쳐 심사가 이뤄진다. 심사위원으로는 사고와 표현 과정 연구원, 전임교수, 강의전담교수, 추천심사위원이 참여한다. 평가 기준은 ▲논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표현 능력 등이다.

수상은 ▲최우수상(1명) ▲우수상(4명) ▲장려상(5명)으로 이뤄지며 상금은 순위에 따라 50만 원, 20만 원, 5만 원이 차등 지급된다. 수상결과는 수상자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대회를 주최한 박선옥(사고와 표현 과정) 교수는 "본 대회가 참여자 개인의 실력을 점검하고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희 기자

monica6610@naver.com

# 복귀한 김상조 교수, 2학기부터 강의 진행 예정

김상조 교수가 본교 사회과학부 로 복직함에 따라 오는 2학기부터 강의를 진행한다.

1994년부터 본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해 온 김 교수는 지난 2017년



▲김상조 사회과학부 교수

6월 13일부터 2021년 3월 29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및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용됐다. 그는 『학교법인 한성학원 정관(이하 정관)』 제44조(휴직의 사유) 제11호의 '국가기관,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한시적으로 임용된 때'에 의거해 임용 기간 동안 휴직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지난 3월 29일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 이틀 전, 본인 소유의 아파트 전셋값을 14% 가량 인상한 것이 밝혀져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에서 사퇴했다. 동시에 휴직사유가 소멸돼 지난 4월 12일 복직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4월 23일 상상관 9층 대회의실에서 '학교법인 한성학원 2021학년도 제1차 이사회'가 진행됐다. 정관 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휴직교원은 휴직사유 소멸 후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해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김 교수의 복직이 의결됐다. '현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내 복귀를 신고할 경우 복직이 승인된다'는 정관 제44조 제3항에 의거한 것이다.

사회과학대학 내 일부 학생들은 김 교수의 복직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익명을 요청한 사회과학대학 소속 학생은 "김 교수님의 사퇴 사유 및 경찰 조사로 논란이 많은 상황인데,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채 복직하면 수업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재준(무역 2) 무역학과 학생회장은 "교수님이 학교에 계시는 많은 학생의 존경을 받았다"며, "변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도 새로운 인식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본부는 김 교수의 복직이 정관 규정을 기준으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김수영(교수지원팀) 팀장은 "김 교수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복직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정관에 따라 복직된 것"이라며, "교원 복직에 정관의 다른 기준은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김 교수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혐의로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의 조사를 받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학교에 전달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팀장은 "경찰청이나 검찰에서 별도의 연락이 오지는 않았다"며, "조사 관련 통보가 온다 해도 복직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교수는 2021년 1학기 강의를 배정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학기 강의책임시수를 채울 수 없다. 『교원교수시간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교원이 담당 책임시간에 미달할 경우, 해당 시간의 급여는 환수된다. 이에 본교는 이번 학기 김 교수의 급여 일부를 올해 하반기 중 환수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김 교수는 오는 8월까지의 급여 전액을 본교 학생 장학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김 팀장은 "8월까지 김 교수의 급여는 강의비를 하지 않고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 교수가 환수 금액까지 합한 급여 전액을 학생 장학금으로 약정했다"고 설명했다.

신혜림 기자 hyerm126@hansung.ac.kr

## 계속되는 스티커 무단 폐기, 해결방안 모색 중

학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을 중심으로 문진확인 스티커(이하 스티커) 무단 폐기를 우려하는 여론이 꾸준하다. 지난해 9월 대학본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건물 입구에서 스티커를 배부하면 서부터다. 대학본부와 학생자치구는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 본교 홍보대사 '하랑'이 학생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여기에 버려주세요!' 캠페인을 벌였다. 캠페인은 정문, 상상관, 상상파크에 설치된 판넬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학생회는 지난 2월 8일 열린 '2021 제1차 학생대표 정기 간담회'에서 스티커 제거 봉사활동을 제안했다. 해당 제안은 신입생 캠퍼스 투어에 앞서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무산됐다.

스티커 무단 폐기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상태다. 스티커를 떼어내고 남은 잔여물에 대한



▲무단으로 버려진 문진확인 스티커 모습

지적도 제기됐다. 배기빈(산업경영 4) IT공과대학 학생회장은 "지선관 1층 자판기에는 가격표마다 스티커가 붙어 있다"고 목격담을 전했다. 학교 주변 거리, 대중교통 등 교외에서 스티커가 발견되기도 했다. 용세아(한디원 1) 학생은 "등하교 길 대중교통에서 아무 데나 버려진 스티커를 자주 봤다"며, "학교 이미지가 나빠질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학생자치구는 스티커 무단 폐기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경택(컴공 4) 총학생

회장은 "앞으로 스티커 무단 폐기 문제가 계속된다면 스티커 제거 봉사활동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며, "단과대 차원에서 진행하는 스티커 관련 사업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T공과대학 학생회도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3월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스티커 회수사업' 공약을 제시했다. 버려진 스티커 5장을 청소한 뒤 사진을 찍어 제출하면 기프트콘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배 회장은 "해당 공약은 오는 5월 18일 개최될 대의원총회에서

예산안을 인준받은 뒤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학본부도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다. 구자운(총무인사팀) 차장은 "스티커 재고가 모두 소진되면 문진 확인 방식을 바꾸는 방법도 고려 중"이라며, "팔찌 형식이나 마스크에 붙이는 스티커 등 여러 가지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민원이 접수되면 스티커 회수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아직까지 접수된 민원은 없다"고 설명했다.

박한석 기자 hanseok@hansung.ac.kr

## 2021 상상부기 온라인 페스티벌 개최

오는 13일과 14일 양일간, '2021 상상부기 온라인 페스티벌(이하 페스티벌)'이 낙산관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13일에는 '비긴어게인', 14일에는 'E-Sports 챔피언십'이 한성대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중계될 예정이다. 이번 페스티벌 중계를 시청하거나 투표에 참여한 재학생에게는 비교과 포인트를 최대 20pt 지급한다.

페스티벌 1일차에 진행되는 비긴어게인은 재학생이 노래, 춤, 개인기로 순위를 겨루는 가요제다. 예선 1·2차를 통과한 6개 팀이 이날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순위는 본선 당일 구갈 설문지 학생 투표를 통해 정해지며, 시상은 ▲대상(1명) 100만 원 ▲금상(1명) 70만 원 ▲은상(1명) 50만 원 ▲동상(3명) 10만 원 순으로 지급된다.

순위와 별개로 특별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특별상으로 선정된 팀에겐 20만 원 상금이 지급되며, 본선 무대에 오를지는 미정이다. 6월 7일 기준

2일차에 진행되는 'E-Sports 챔피언십'은 모바일 카트라이더와

League of Legends(이하 LOL) 게임의 우승자를 가려내는 대회다. 모바일 카트라이더 부문에서는 예선에서 50점에 먼저 도달한 8명이 본선에 진출할 예정이다. 본선 당일에는 80점에 먼저 도달한 순서대로 참가자의 순위가 결정되며, 시상은 순위에 따라 총 8가지 상품 중 원하는 상품을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LOL 부문도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된 예선을 거쳐 선발된 2개 팀이 경기를 펼칠 예정이다. 본선은 3판 2선승제로 우승이 가려진다. 순위에 따라 애플워치 SE와 치킨 기프티콘이 차등 지급된다.

박태민(학생장학팀) 팀원은 "작년에는 학생장학팀이 페스티벌을 진행했지만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총학생회가 페스티벌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경택(컴공 4) 총학생회장은 "코로나19로 지친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 가요제를 기획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얻어갈 바란다"고 전했다.

김지윤 기자 jizhey@naver.com

# 한성대신문

##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www.hansungnews.com



**인스타그램**  
@hansungnews



**카카오톡채널**  
@hansungnews



**에브리타임**  
게시판 > 한성대신문사



**페이스북 페이지**  
facebook.com/hansungpresscenter



**청년이 묻고 현장이 답하다**

나 말고 다른 사람, 그의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그에게 묻는 것보다 그가 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지 않던가. 종이에 적힌 자료보다 한 번의 경험이 더 현실적이다. 나를 그로 바꾸기 위해 신문사 밖으로 향한다.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생생한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일회용품의 사용량이 증가했다. 비대면 접촉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포장 및 배달 수요가 급증한 것이 이에 크게 일조했다. 가공이 쉽고 값이 싼 플라스틱은 배달을 식별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 이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상에서 플라스틱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2주는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나머지 2주는 플라스틱 없는 '노플라스틱 챌린지'를 실천해왔다.

김지윤 기자 jzhej@naver.com  
조정은 기자 cjed04@naver.com



# 대체 가능해서 완벽했던 NO 플라스틱

## 일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플라스틱

**#4월 4일, 화장품 구매하기**

한성대입구역 1번 출구에서 나와 공장 화장품 가게에 도착한다. 매장에 들어간 뒤 선택 매대로 향한다. 매대에 있는 모든 화장품은 유리,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있다. 그중에서도 개질 위험이 적은 플라스틱 제품을 선택해 바꾸니에 담는다. 클렌징 패드도 구매하기 위해 로션 매대 뒤편으로 향한다. 클렌징 패드 용기 역시 플라스틱이다. 물건을 바꾸니에 담은 후 계산대로 이동한다. 그러다 문득 집에 있는 다 쓴 화장품들이 떠오른다. 처리할 생각을 하니 막막할 뿐이다. 구애한 화장품을 가방에 넣으며 화장품 가게 밖으로 나간다.

**#4월 6일, 커피 주문하기**

신문사에 출근 후 기자들과 음료를 주문하기 위해 배달 어플을 켜다. 커피 전문점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배달 어플 정바구니에 담는다. 제법 쌀쌀한 날씨에 따뜻한 음료를 주문하는 기저도 보인다. 대략 30분이 지나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배달 기사 양손에 음료가 가득 들려있다. 물건을 받은 후 봉지에서 음료를 꺼내 보니 총 9개의 용기가 보인다. 8개의 아이스 음료는 컵과 뚜껑 모두 플라스틱으로 이뤄졌다. 따뜻한 음료는 종이컵에 담겨져 있지만, 뚜껑은 플라스틱이다. 주문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플라스틱 빨대를 들고 자리로 간다. 책상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기자들 모니터 옆에 다 마신 플라스틱 음료 컵과 빨대가 2-3개씩 놓여있다. 사물함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도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있다.

**#4월 12일, 택배 정리하기**

'핑퐁'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다. 주말에 로켓배송으로 주문한 바다위시가 배송됐다는 문자다. 무인택배함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린다. 1층에 도착하니 무인택배함이 보인다. 무인택배함 한쪽에는 많은 사람의 택배 물품이 대략 2-30개 정도 쌓여있다. 택배 상자를 들고 방에 도착해 상자를 커터칼로 개봉한다. 개봉된 상자 안에는 에어캡이 바다위시를 감싸고 있다. 에어캡을 제거하자 모습을 보이는 바다위시, 이마저도 플라스틱 용기다.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설치된 잠금장치도 플라스틱이다. 택배에서 나온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넣는다. 어느덧 쓰레기통이 가득차다.

**#4월 17일, 배달음식 시켜 먹기**

룸메이트와 마라탕을 먹기 위해 배달 어플을 다시 켜다. 중국집 키워드를 클릭 한 후 마라탕 맛집을 찾아 본다. 맛집에서 추가할 재료를 선택한 뒤 정바구니에 담는다. 45분이 지난 후 전화벨이 울린다.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배달을 받으며 1층으로 내려간다. 음식을 받고 방에 도착해 비닐봉지를 열어보니 대략 15cm 높이의 플라스틱 용기에 마라탕이 담겨 있다. 가게에서 보내준 단무지 용기와 일회용 숟가락도 플라스틱이다.

우리 일상 속에 플라스틱이 이렇게 많이 침투해 있는데, 내일부터 플라스틱 없이 생활해야 한다면 막막하기만 하다.

**플라스틱과 떨어진 14일**

**#4월 19일, 음식 포장해서 먹기**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이동해 무인주문대 앞에 선다. 소금구이 덮밥을 선택한 뒤 결제를 한다. 곧바로 식당 직원에게 달려가 미리 가져간 도시락통을 건넨다. 도시락통에 주문한 덮밥을 담아 달라고 요청을 한 뒤 자리에 앉아 음식이 나오길 기다린다. 핑퐁 소리와 함께 전광판에 주문번호가 뜬다. 번호표를 들고 덮밥 구역으로 향한다. 장판 위에 있는 도시락통을 쟁겨 식당을 나온다.

**#4월 22일, 텀블러에 커피를 담아 테이크아웃 하기**

신문사 출근 전 커피를 마시기 위해 교내 커피전문점으로 이동한다. 곧바로 가방에서 텀블러를 꺼낸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함과 동시에 텀블러를 카페 사장에게 건네며 말한다. "커피는 텀블러에 담아주세요. 일회용 빨대는 안 주셔도 됩니다." 자리에 앉아 주문한 커피를 기다린다. 열 테이블에는 따뜻한 음료가 담긴 종이컵이 플라스틱 뚜껑으로 덮여 올려져 있다. 대략 4분 정도 지나 기자가 주문한 커피가 텀블러에 담겨 나왔다.

**#4월 28일, 음료 만들어 먹기**

오후 3시쯤 갑자기 음료가 마시고 싶었다. 음료를 사기 위해 편의점으로 이동한다. 편의점 통유리 안에 들어있는 70% 이상의 음료는 플라스틱 제품이다. 평소라면 비닐에 담겨있는 음료와 함께 플라스틱 열음컵을 구매했겠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먹는다. 음료를 직접 만들어 먹기로 결심하고 편의점을 나선다. 생활용품 매장에 가서 대화용 물통과 열음판을 집어든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열음판에 물을 넣고 병동실에 열린다. 2시간쯤 흘렀을까. 열음이 모두

알았다. 곧바로 물병에 열음 5개를 담는다. 주시권을 꺼내 의자에 앉은 뒤 열음 위에 음료를 붓고 한입 들이킨다.

**#5월 1일, 제로웨이스트샵 방문하기**

플라스틱 없는 제품을 사기 위해 제로웨이스트샵에 방문한다. 매장에서는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판매한다. 스테인리스 빨대, 대나무 칫솔, 교체차약 등이 그것이다.

매장을 둘러본 뒤 대나무 칫솔과 교체차약을 들고 계산대로 향한다. 교체차약은 씹어서 양치질을 하는 방식이라 왜인지 거부감이 든다. 이런 생각을 읽기라도 한 건지 운영자가 제품의 바코드를 찍으며 말한다. "고체차약은 거품이 잘 나지 않아 양치질이 잘 안 될 것 같지만, 직접 사용해본 시면 거품도 잘 나고 오히려 간단해서 편리하실 거예요"

저녁을 먹은 뒤 양치질을 하기 위해 화장실로 향한다. 종이로 포장된 교체차약과 대나무 칫솔을 꺼낸다. 교체차약의 통은 스테인리스고, 대나무 칫솔의 손잡이는 대나무다. 그 어디에도 플라스틱은 없다.

예상대로 노플라스틱 챌린지 2주간 불편함은 없었다. 마음만 먹으면 플라스틱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었다. 4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사용한 플라스틱 개수는 총 36개다. 하루에 2개 이상 플라스틱을 사용한 것이다. 그동안 왜 그렇게 많은 플라스틱을 썼어야 했는지 의문이다. 지금은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지 20일째다. 신문사 출근을 위해 가방을 챙긴다. 노트북, 에어팟, 텀블러, 교체차약... 이제는 텀블러와 교체차약을 외출할 때 챙기지 않으면 허전하다.



▲제로웨이스트샵에서 교체차약을 구매하는 모습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 대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14일 동안 모은 플라스틱

# 쓰레기 없는 그날까지

## 사용은 5분, 분해까지 500년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제로웨이스트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서도 제로웨이스트 실천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다.

제로웨이스트(Zero-Waste), 말 그대로 쓰레기가 없다는 의미다. 제로웨이스트 운동의 목표는 유리, 플라스틱, 종이 등 모든 쓰레기의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제로웨이스트 운동은 산업화 이후 1970년대 브라질에서 처음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제로웨이스트를 수용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면서 제로웨이스트 운동이 다시 대두됐다. 녹색연합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기준 배달음식 주문량은 270만 건이며, 플라스틱 배달용기 쓰레기(주문 시 최소 3개) 발생량은 최소 830만 개다.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4,884t ▲2019년, 7,430t이다. 코로나19 이후에도 플라스틱 사용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제10호)」 ▲2021년 1월, 809t ▲2021 2월, 839t ▲2021 3월, 868t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경(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많은 사람이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음식이나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게 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욱 증가했다”고 말했다.

여러 환경단체에서는 꾸준히 증가하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퍼포먼스를 실시했다. 그린피스의 플라스틱 사용 감축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의 피자 트레이 플라스틱 퇴출 퍼포먼스, 녹색연합의 배달 플라스틱 문제 줄이기 퍼포먼스 등이 그것이다.

지난 2월 9일에는 대학생연합환경동아리 에코로드(이하 에코로드)가 대형마트에서 상품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플라스틱과 비닐로 과대포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미지 본사 앞에서 '플라스틱 어택'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재현(에코로드) 대표는 "퍼포먼스를 통해 플라스틱 쓰레기의 증가는 결국 우리의 보급자들로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것을 대형마트에 전달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버려진 플라스틱이 재활용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실제로 미국의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배재근(서울과학기술대 환경공학부) 교수는 "플라스틱 재활용은 현재까지 낮은 수준이라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성(제로웨이스트샵 순환지구) 운영자는 "미세플라스틱이나 미세쓰레기 등이 바다로 방출될 경우 동물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며, "환경오염은 결국 우리에게 피해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플라스틱 배출량 증가 시 가장 큰 문제는 플라스틱이 잘 썩지 않는다는 점이다.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데 걸리는 기간은 대략 500년 정도다. 배 교수는 "플라스틱이 자연계로 방출돼 축적될 경우 사회적으로 많은 환경오염을 불러일으키게 된다"고 말했다.

## 비 존슨의 5R 실천법



**Refuse** (필요없는 물건 거절하기)

상점이나 식당에서 받는 영수증,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등을 받지 않는다



**Reduce** (필요하며 거절할 수 없는 것은 줄이기)

새로운 제품보다 중고제품, 버리기 대신 쓸 만한 물건을 이웃에게 나눈다



**Reuse** (거절하거나 줄일 수 없는 것은 재사용하기)

정바구니와 리유즈 백, 대화용기를 챙긴다



**Recycle** (재활용하기)

재사용할 수 없는 것은 재활용하거나 리사이클링 제품 사용한다



**Rot** (썩는 제품 사용하기)

일회용품을 사용해야 한다면 생분해되는 것을 구입한다

## 큰 변화를 위한 작은 실천, 제로웨이스트

많은 사람이 플라스틱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제로웨이스트 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제로웨이스트 운동 실천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제로웨이스트 실천법을 최초로 공유했던 미국 여성 비 존슨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5R 실천법을 제시했다. 실천법에는 Refuse(필요하지 않은 것은 거절하기), Reduce(필요하며 거절할 수 없는 것은 줄이기), Reuse(소비하면서 거절하거나 줄일 수 없는 것은 재사용하기), Recycle(거절하거나 줄이거나 재사용할 수 없는 것은 재활용하기), Rot(자연에서 잘 썩는 제품 사용하기)가 있다.

그녀는 2019년에 tvN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 커바스토리에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받는 작은 증정품을 거절하거나, 명함을 받지 않는 등 제로웨이스트를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다"고 전했다. 비 존슨이 방송을 통해 보여준 4인 가족이 1년 동안 배출한 쓰레기의 양은 작은 유리병에 다 담길 정도였다.

우리는 카페 이용 시 개인용 텀블러 사용하기, 음식을 배달할 때 일회용품 수저 및 포크 거절하기, 쓰레기 분리배출하기 등 일상에서 제로웨이스트를 쉽게 실천할 수 있다. 김 운영자는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모여

환경 보호로 이어진다. 대나무 칫솔이나 삼푸바 등 제로웨이스트 물건은 구매해 실천하는 것도 좋지만, 개인용 텀블러 사용하기, 배달음식 주문 대신 직접 도시락 용기에 음식 담아가기 등 작은 실천부터 부담 갖지 말고 시작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운영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녀는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제품 대부분이 플라스틱이다. 화장품 공병, 카페 일회용컵, 배달음식 주문 시 제공하는 플라스틱 용기 등 우리 생활에서 플라스틱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것 같다"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텀블러, 개인용 도시락 용기를 항상 들고 다니고 있다"고 전했다.

더 나아가 제로웨이스트 실천은 일상 속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김 운영자는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면서 꼭 필요한 제품만 구매하는 습관을 갖게 됐다. 소비 비용, 음식물 쓰레기 등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환경보호를 위한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당시에 오늘 버린 쓰레기는 얼마나 되는가? 나를 수박에 없었던 쓰레기는 얼마나 되는지 곰씹어보자.



▲비 존슨이 1년간 배출한 쓰레기 양

“나한테 필요 없는 물건도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물건일 수 있다. 제로웨이스트는 지금 곧바로 실천 가능하다.”

#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발표, 청년의 현실 반영됐나

지난 3월 30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 발표됐다. 32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했으며 전체 과제 수는 308개, 예산은 약 23.8조 원이다.

본지는 과제 수, 예산 규모를 고려해 많은 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관과제를 살펴봤다. 교육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청년이 직접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교육부 소관과제는 37개로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많고, 예산은 5조로 국토부, 고용부 다음으로 높게 책정됐다. 이에 대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로 나눠서 살펴보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봤다.

## 직업교육 지원 및 일자리 확충

일자리 분야 과제는 ▲고졸청년 취업 지원 ▲지역인재 양성 직업교육 지원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이 있다. 교육부는 고졸청년 취업 지원 분야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내실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취업지원관 배치를 통해 고졸청년 취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인재 양성 직업교육 지원 사업 중 하나는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이다. 마이스터대는 일부 학교에서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단기-전문학사-학사-전문기술석사과정)을 편성해 운영하는 대학이다. 이는 '전문대 졸업생의 입사 비율이 높은 중소기업의 고숙련 기술인재 부족 문제'와 '기술, 실무 능력을 보유한 인력 및 첨단 분야 인력의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마이스터대로 선정된 대학은 ▲대림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협력대학 연성대) ▲동의과학대학교(협력대학 동주대) ▲영진전문대학교 ▲한국영산대학교(협력대학 아주자동차대)다. 김교일(동양미래대 전기전자통신공학부) 교학처장은 "고숙련전문기술자처럼 직업영역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어 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반 석사과정을 하려면 대개 일시적인 경력단절이 생기게 되는데, 마이스터대는 일·학습 병행 개념을 기반으로 해 석사과정을 진행하므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사업에서는 'K-MOOC 학점은행제'에 참여하는 청년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평생교육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을 마련한다.



## 일자리

- 고졸청년 취업 지원
- 지역인재 양성 직업교육 지원
- 온택트 교육 기반 구축

## 주거

- 기숙사 확충
- 기숙사비 현금분할납부 및 카드납부 비율 확대

## 교육

- 교육비 부담완화
- 대학 미진학 청년 교육비 지원
- 지역 청년인재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청년 미래역량 강화

## 복지·문화

- 청년 정신건강 인프라 확대
- 장애대학(원)생 교육여건 개선

## 참여·권리

- 대학 내 주요 의사결정 기구 학생 참여 비율 10% 이상 권고
- 인권센터 설치 법제화

### 청년 주거 부담완화

주거 분야에서는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경감을 통해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연합 행복기숙사, 사립대 행복기숙사, 국립대 기숙사 등 캠퍼스 내외에 다양한 유형의 대학생 기숙사가 확충된다.

기숙사 확충에 대해 김기현(청년연구센터) 센터장은 "그동안 기숙사 확충이 잘 되지 않았던 이유는 대학이 주변 하숙이나 원룸을 운영하는 지역 주민의 반대가 가장 크다"며 "기숙사 공급과 더불어 주거비, 생활비 지원을 병행하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숙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현금분할납부 비율과 카드납부 비율도 작년대비 각각 3%p씩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 기숙사는 비용 납부 방식으로 ▲현금일괄납부 ▲현금분할납부 ▲카드납부를 채택하고 있다. 전체 비용을 일정 횟수로 나눠 납부하는 현금분할납부와 카드납부 비율을 늘려 대학생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 센터장은 정책 효력에 대해 "기숙사비를 받는 입장에서 이자 수익도 있고 편리해 현금일괄납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책 시행으로 현금분할납부와 카드납부 방식을 확대하면 대학생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28일,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며 '삼보일배 행진'을 하고 있는 2021 등록금반환운동본부의 모습

### 청년 교육 역량 강화

교육 분야의 과제로는 ▲교육비 부담완화 ▲대학 미진학 청년 교육비 지원 ▲지역 청년인재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청년 미래역량 강화 등이 있다.

대학생 교육비 부담완화 정책 중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와 '학자금 대출금리 20년 대비 0.08% 인하'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의 건의가 일정 반영된 결과다. 전대넷은 지난 2019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간담회 등에 참석해 대학생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전대넷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등록금 반환은 시행계획에서 제외돼 비판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지난 3월 28일에는 전대넷 2021 등록금반환운동본부가 '등록금 반환을 위한 정부서율청사-청와대 대학생 삼보일배 행진'을 진행했다. 김민서(전대넷 대외협력국) 국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학과 정부에게는 대학생을 고등교육의 주체로 인정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학 미진학 청년 교육비 지원에서는 대학교를 진학하지 않은 청년의 후속 학습장학금을 확대할 예정이다. 해당 과제로 20년 대비 21년 장학금을 수혜 받는 청년이 2천 명 늘어난다. 또 저소득층 청년 대상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인원·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의 교육 지원을 위해 지역 청년인재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과 청년 미래역량 강화도 진행된다. 교육부는 지자체와 대학 간의 협력 플랫폼을 확대하고,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구성해 교육 콘텐츠를 공유하는 혁신공유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 청년 정신건강 인식 개선 필요

복지·문화 분야의 과제는 '청년 정신건강 인프라 확대' 및 '장애대학(원)생 교육여건 개선'이 있다. 청년 정신건강 인프라 확대 분야에는 ▲신입생 정신건강검사 ▲국립대 상담 클리닉 운영 ▲대학 내 상담 인력 확충 등이, 장애대학(원)생 교육여건 개선에는 ▲장애대학(원)생 원격수업 보조 지원금액 확대 ▲교육지원인력 시급 증액 등이 있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발표한 '국가정신건강현황보고서 2019'에 따르면 20대 기준 69.1%가 지난 1년간 하나 이상의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서비스를 직접 이용해 본 적이 있는가'를 묻는 항목에는 7.4%만 긍정적으로 답했다.

김지혜(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예방팀) 팀장은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 부정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 취업 시 불이익에 대한 걱정 등이 작용한 것"이라며, "인프라 확충뿐만 아니라 인식 개선 활동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미례(한국상담학회) 대외협력위원장은 "청년이 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학 내 상담인력 확충'은 학내 전문상담 인력 1인이 담당하는 평균 재학생 수를 1,150명에서 1,000명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이다. 장은영(호남대 심리학과) 교수는 "축소 폭이 작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번 발표가 지속적으로 담당 학생 비율을 낮추게 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청년 주도성 및 권익보호 확대

참여·권리 분야에서는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청년 주도성을 확대하고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대학 내 주요 의사결정 기구에 대한 학생 참여 비율이 10% 이상 되도록 세부 권고기준을 마련했다. 또,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인권센터 설치법제화하고 대학 내 인권센터를 확충했다.

세부 권고기준 마련에 대해 김 센터장은 "과거에는 학내 의사결정 기구에 학생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논의 자체가 없었다"며 "이번 세부 권고기준 마련은 학생이 의무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진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부는 대학인권센터 설치 법제화를 위해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장희(창원대 인권센터) 센터장은 토론회에서 "법제화 수준은 인권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중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요구하는데 그쳐야 한다"며 "그 외의 사항은 대학인권센터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현재 코로나19로 많은 청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계획으로 어려운 청년의 삶이 변화할 수 있도록 진로·취업·복지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장지혜(서울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실업, 주거 불안정, 마음건강 등 우리가 겪는 문제들은 개인의 탓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청년정책이 청년 현실을 반영해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삼 학 송 ·

# 이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총학을 기대하며

학기가 시작된 지 절반이 지난 지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의 확산세가 여전하다. 대학 내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학생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대학가에는 비대면과 대면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강의 방식이 이어지고 있다.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총학생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등교하지 않는 학생들이 늘면서 학생의 목소리를 대표하고 학생과 대학본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총학은 바빠질 수밖에 없다. 한 학기의 중후반대로 접어든 지금, 과연 본교 총학은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

총학은 올해 대학본부와 2년의 정기 간담회를 진행했다. 2월 8일 진행된 1차 정기 간담회에서는 1학기 개강을 앞두고 발생한 수강신청 문제와 학사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당시 총학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개선사항 설문조사'를 실시해 학생의 의견을 학교에 건의했다. 3월 25일 진행된 2차 정기 간담회에서는 수강신청 이후 발생한 문제와 비대면 시험 요청, 홈페이지 개선 등이 논의됐다. 본부는 2년의 간담회 모두에서 건의사항에 대한 답을 내놓았다.

그러나 총학은 그 어느 곳에도 간담회 결과를 고지하지 않았다. 에브리타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낙산의 메아리 등 총학이 사용하는 학내 커뮤니티에는 외부 업체와의 제휴 안내 글과 행사 공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간담회 결과의 안내문을 공지했다는 본지의 질문에 총학은 "본부가 e-class에 결과문을 올린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확인 결과, 간담회 의제 중 일부인 한성 e-class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뿐이었다.

대외활동 소식도 마찬가지다. 총학은 작년에 이어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의 등록금 반환 및 학습권 침해 저항 운동에 서명했지만 실질 참여나 학생에게 정보 전달은 진행하지 않았다.

총학은 학생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도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트랙 폐지 등 교내 일이 발생했을 때 학내 커뮤니티에서 학생의 불만이 표출된 후에야, 혹은 대학의 조치가 이뤄진 뒤에야 학생 의견을 수렴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난해와 크게 다를 바 없음에도 전 총학과 지금 총학의 소통 방식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 전 총학은 작년 7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모든 결과를 학내 커뮤니티에 공지했다. 학생들은 건의내용에 대한 학교의 답변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전대넷 활동 내역을 정리해 주요 SNS에 배포하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300여 명일 때에는 단과대학·학과 학생회와 협심해, 학생들 의견을 모아 비대면 시험 전환을 학교에 요구하기도 했다.

올해 코로나19를 대하는 사람들의 피로감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확진자가 조금이라도 증가하면 비대면을 주장했던 학생들은 이제는 큰 항의 없이 대면 강의를 듣고 대면시험을 보는 등 작년과는 달리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일일 신규 확진자가 500명을 넘겨도 작년보다 비교적 작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총학만큼은 이 상황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 코로나19 확산 위험은 여전히 높고 학생은 대면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학습권 보장과 등록금 반환을 위한 목소리는 그대로이지만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총학마저 피로감에 매몰된다면 학생들이 기릴 곳은 없다.

총학에게 묻고 싶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은 총학에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들이어서 다행인 총학으로 남을 것인가? 만약 후자를 꼽는다면, 지금의 모습을 유지해선 안 된다. 이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총학 선봉의 의미처럼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박희연 편집국장



지난 4월 24일,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저지 대학생&국민농성단, 진보대학생넷 등 시민 단체가 서울 종로구의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저지 1만 국민행동' 집회를 열었다. 일본 정부가 세슘 860Bq이 포함된 제1원전 탱크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방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올해 4월 일본은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 1kg에서 세슘 270Bq이 검출돼 출하를 불허한 바 있다. 출하 가능한 세슘 기준치는 어류 1kg당 100Bq까지다. 세슘 기준치가 2.7배 초과된 어류는 출하 불가능한데, 오염수 방류는 어떻게 가능한 건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조정은 기자

## ■ 기자수첩

지난 4월, 빗썸이 만개한 시기에 빗나무 가지를 꺾어가는 사람을 보았다. 빗나무는 한번 꺾인 가지에서 새로운 가지가 자라지 않는다. 심지어 꺾인 가지가 썩어 나무 전체가 말라 죽을 수 있다. 필자는 빗나무에 생긴 상처를 보며 우리 사회의 청년을 떠올렸다. 청년 10명 중 1명은 '지옥고'에 거주한다. '지옥고'란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의미하는 줄임말이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된 '청년 가구의 주거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국내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가구의 약 9%가 최저주거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2016년부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 청년의 미래를 꺾지 않으려면

지금까지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 대상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것이다. 지난 2월 8일, 서울시 노원구의 한 초등학교 담장에 '청년 주택 결사반대'라는 플래카드와 함께 '공사 소리 없는 조용한 곳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적힌 아이들의 그림이 걸렸다. 초등학교에서 도보 5분 거리의 상가를 허물고 시행 예정인 청년주택 건설에 반대하는 것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 반대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2018년 4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 아파트 주민들도 청년주택을 '5평형 빈민아파트'라 폄하하며 청년주택 건설을 반대하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같은 해 11월 서울 강동구 성내에서도 '청년주택 결사반대' 구호를 외치며 청년주택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다.

청년주택은 청년이 자육고에 거주하며 최소한의 안전과 행복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지붕 역할을 한다. 서울시립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희(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청년주택 정책은 우리 사회가 더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며, 청년주택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주민들이 계속해서 청년주택 건설에 반대한다면, 그들은 청년이라는 가지를 꺾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가지를 꺾인 빗나무는 꽃을 피울 수 없듯 상처 난 청년의 미래는 치료하기 어렵다. 청년은 그저 마음 놓고 살 곳이 필요할 뿐이다.

박지연 기자

## ■ 낙산에 올라

"나는 '최고', 그런 말이 참 싫어요. 그러지 말고 다 '최중'되면 안돼요, 그냥?" 지난 4월 25일, 미국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인의 이름이 불리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그의 이름은 '윤여정'. 젊은 세대인 우리에게 영화, 예능 프로그램 등 수많은 스크린에서 얼굴을 비추는 할머니이자 오래된 배우였다. 한국 이민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미나리'의 따뜻한 할머니 역할로 상을 탔다는 것 이상으로 한국인들은, 특히 한국 청년들은 윤여정에 푹 빠졌다. 이들이 그에게 이토록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 현재 청년은 전례 없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정국 속 스스로를 지키는 것조차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다. 매번 최악을

## 최고가 아니어서 더 멋진 위로

겪는다는 취업률, 끝없는 스펙 경쟁 등이 이를 방증한다.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는, 진정한 어른으로 가는 과정은 막막하기만 하다. 그런 청년에게 윤여정은 진정한 어른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그는 솔직하고 당당하지만, 겸손을 잃지 않는 모습을 청년에게 보여줬다. 화려했던 젊은 시절의 영광을 뒤로한 채 바다부터 다시 시작했던 중년의 그는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었다. 드라마 단역 제의가 왔을 때에도 새로운 경험이라며 도전했다. 회가 거듭될수록 배역의 비중이 커지던 순간 그는 이렇게 회고했다. "한 계단씩 오르다 보면 멋진 기회가 온다." 삶의 오랜 축적으로부터 비롯된 그의 통찰과 말은 청년에게 큰 위로와 배움이 됐다.

또한 그는 오히려 세상을 다 아는 듯 조언을 일삼는 끈대와는 다르게 자신의 불안 전하며, 아쉽고 불안한 인생을 인정했다. "세상은 서러움 그 자체고 불공정하지만 내가 극복해야 하는 것 같아. 나는 내가 극복했어"라는 말을 통해 그런 삶 또한 극복할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줬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겸허한 태도로 삶을 받아들이는 그의 모습은 이 시대 청년들에게 큰 귀감이 된다. 최고가 아닌 최중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같이 좋은 어른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를 다시 고민해 본다.

이정현(인문 4)

## ■ 의화정

# 후회 없는 대학 생활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 생활도 똑같다. 교수로서 강의나 상담을 통해 많은 학생을 만나왔다. 대학 입학 목적을 학창시절을 열심히 보낸 학생 대부분은 대학 입학 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 사이 학생은 많은 것을 놓치거나 지나치게 된다. 시간이 흐른 뒤 대학 생활을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고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꾸준한 공부다. 대입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다가 덜컥 대학에 들어온 학생은 이전만큼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교수자로서 학교를 갖 입학한 학생이 지친 마음에 돌아보겠다는 일념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한번 학문에 소홀해지면 다시 돌아가기 어렵다. 대학생도 고등학생만큼 공부하는 것이 좋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공부하는 것을 권한다.

둘째, 좋은 습관 가지기다. 작지만 좋은 습관은 인생을 바꾼다. 일찍 일어나기, 침대 정리하기, 잠깐의 스트레칭, 아침

식사하기, 계단 오르기, 스마트폰과 게임에 빠지지 않기, 일찍 잠자리에 들기 등 작지만 사소한 습관부터 가져보자. 성공은 큰 목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작은 습관에서 비롯된다.

셋째, 겸손함이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됐다고 저절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험과 훈련이 필요하다.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자만을 버려야 한다. 겸손해야 자신을 채울 수 있고, 채워야 성장할 수 있다. 선배로부터, 어른으로부터, 교수님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책으로부터, 경험으로부터 겸손하게 배워야 한다.

끝으로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자. 관계는 양쪽의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생이 되면 학창시절보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많은 활동에 참여하면서 여러 사람과 어울릴지 바란다. 무엇보다 부모와도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대화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길 바란다.

최찬근(사회과학부) 교수

## 기자사령

- 정 기자 권노은(인문 1)
- 김기현(인문 1)
- 김지윤(사회과학 1)
- 박지연(뷰티 1)
- 박한석(CT 2)
- 한혜정(사회과학 1)
- 수습기자 박성희(인문 3)

〈한성대신문〉은 교수님의 동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면에 실을 동정이 있으면 한성대신문사(내선 4186)로 문의바랍니다.

신 기자와 떠나는 문화여행



요즘 넷플릭스나 왓치 같은 OTT 서비스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는 같은 작품을 보더라도 똑같은 생각을 갖지 않는다. 작품의 온전한 의미는 보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해석은 여러분의 몫이다. 나만의 해석을 찾기 위해, 문화 여행을 떠난다.

누구나 죄를 저지를 수 있다. 그 질이 얼마나 나쁘냐에 따라 법은 우리를 처벌한다. 죄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단연 판사뿐이다. 만약 일반인에게 죄의 경중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아가 이들이 죄의 유무를 결정할 수 있다면 수사 과정은 어떻게 변화할까? 세 번째 여행지는 평범한 사람이 죄의 크기를 논할 수 있는 세상이다.

신혜림 기자 hyerm126@hansung.ac.kr

# 죄의 무게를 다는 사람들은

한 남자가 법정 안으로 들어간다. 단상 정면에 3명의 판사가 보인다. 그 앞 한쪽에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다른 한쪽에는 검사가 마주보고 앉아 있다. 검사석 뒤에는 또 다른 자리가 마련돼 있다. 8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앉아 법정을 내려다본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8명의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한다. 이 사람들은 판사의 허락 없이 발언할 수 없다. 한 남자가 조용히 손을 들고 기다린다. 판사가 이 남자에게 종지와 펜을 전달한다. 남자가 무언가를 적는다. 남자가 건넨 종이를 읽은 판사는 검사와 변호사를 부른다. 재판이 중단된다.

### 공정한 판결을 위해

죄인을 처벌하는 일이 중요할까,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일이 중요할까? 누군가 “열 명의 범인을 풀어 주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찬성하겠는가? 영화 <배심원들>에 등장하는 한 인물은 법이 왜 필요한지는 판사의 물음에 “죄 지은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라고 답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법이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법은, 동시에 법 앞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존재한다. 영화 속 인물의 대답에 판사 역시 “법은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처벌하지 못하게 하려고 세운 처벌 기준”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등장한 것이 바로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4항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판사가 유죄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거가 필요하다. 무죄 가능성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행한 ‘민사·형사 재판에서의 입증의 정도에 대한 비교법적·실증적 접근’에 따르면, 무죄 가능성이 없는 재판은 전체의 약 89%다. 이를 제외한 11%는 유죄 증거가 있으면서도 무죄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유로 판사는 양형이 결정돼 판결이 끝나기 전까지 피고인을 무죄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정 내 최고 권력을 가진 판사조차도 사람이기 때문에 오판할 가능성이 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20년간 실형을 살았던 윤성여(54) 씨는 작년 12월이 돼서야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년이 지나 경찰의 불법 수사와 판결 오류가 인정된 것이다. 그의 20년 세월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실제로 윤 씨는 무죄 선고를 받은 후 “1,000억을 준다고 해도 자신의 인생과 바꿀 수 없다”며 착잡한 심정을 밝혔다.



▲배심원들이 증거품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

판사는 전적으로 검사와 변호사의 논쟁, 증인의 진술, 증거 등 재판과 관련한 자료 및 법률에 근거해 판결을 내린다. 따라서 올바른 판결을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중립적인 수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어떤 경우에도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조사는 무죄가 가정된 상태로 진행돼야 하며,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그 원칙을 지켜야 한다. 피고를 유죄로 추정한 채 증거가 수집됐다면 판사는 올바른 판결을 내리기 힘들어진다.

### 결백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영화 <배심원들>에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자리가 하나 더 등장한다. 판사의 시선에서 오른쪽에 자리한 배심원석이다. 배심원 제도는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이하 참여재판)다.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 추첨으로 구성된 배심원은 형사재판에 참여해 사건의 유·무죄 판결을 내리게 된다. 또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제시 권한을 가진다. 배심원이 내린 판결은 판사의 판결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 법제처에 따르면, 배심원은 양형에 관한 의견 개진만 가능하다. 영화 <배심원들>에서도 배심원의 의견은 그저 참고사항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배심원은 수사 기관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힘을 갖는다. 수사 기록 및 증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참여재판에서 수사기록 열람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는 배심원의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배심원은 피고인 및 증인의 신문까지 요청할 수 있다.

배심원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일반 국민’이라는 점이다. 참여재판에서 검사는 법적 배경지식이 적은 배심원에게 재판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재판부는 배심원이 적절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공판기일 전에 설명서를 작성한다. 검사와 변호사도 배심원을 설득하는 행위에 초점을 둔다. 평의가 법적 효력을 갖지 않더라도 여론 및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검사는 수사 과정 및 증거를 보다 꼼꼼히 검토할 것이고 이는 곧 11%의 무죄 가능성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배심원의 존재는 그렇지 않은 재판보다 수사 과정과 증거에 대한 검토가 더 면밀히 이뤄질 수밖에 없다.

죄의 무게를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것은 판사다. 결정의 근거는 수사결과와 검사 및 변호사의 자료다. 억울한 판결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판결 과정 속 모든 주체와 우리들 모두가 무조건적인 처벌 대신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에 더 큰 방점을 찍어야 하지 않을까.

